

국창 권삼득 문화브랜드화 추진 '첫걸음'

완주 문화브랜드화 세미나 '최초 비가비 광대, 권삼득 다시보다' 성료
동시대성 맥락서 콘텐츠 분석·장기적 관점서 지원 체계 마련 등 제안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우석대학교 W-SKY 23에서 완주 문화브랜드화 세미나 '최초 비가비 광대, 권삼득 다시보다'가 주된 문화예술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완주군과 사단법인 완주예총, 완주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조선 최초 양반 광대이자 8대 명창으로 꼽히는 국창 권삼득의 생애와 달령제의 예술성을 재조명하고, 대중화 및 문화브랜드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최초 비가비 광대, 권삼득 다시보다'는 좌장을 맡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유영대 원장의 기조발표로 문을 열었다. 유영대 원장은 우리나라 판소리에서 최초의 비가비(학식 있는 상민으로서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 광대인 권삼득의 삶을 통해 조선 후기, 견고한 시대적 인식과 편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간 예인 권삼득을 소개했다. 이후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한 유민희 한국음악작곡가는 '비가비 명창 권삼득의 생애와 달령제의 예술성'을 주제로 양반이 광대가 될 수 없던 시대, 금기를 넘어 최초로 광대가 되었던 양반 권삼득의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그리고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춘향가' 등 다양한 판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권삼득의 달령제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달령제의 예술성과 확장성을 조명했다. 이어 주제권 정효문화재단 대표는 '권삼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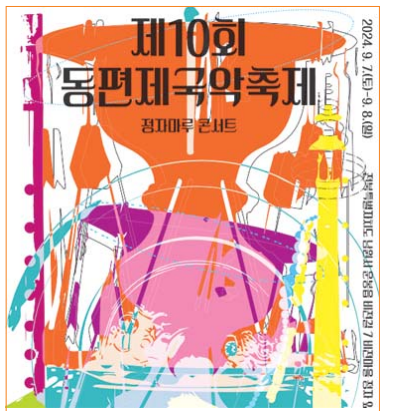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권 대표는 권삼득이 완주의 문화브랜드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200년 전 예술인의 삶과 철학, 예술 세계가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동시대성의 맥락에서 권삼득 콘텐츠를 분석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빈, 정선군의 정선아리랑, 충남 중계 등 국내·외의 문화유산 브랜드화 사례를 분석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권삼득 콘텐츠가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태화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는 고창군의 신재호 문화브랜드화 사례를 예로 들며 권삼득을 문화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삼득과 연관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매년 열리는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의 경우 그 규모나 경연 내용을 살펴봤을 때 권삼득의 예술적 성과를 기리기 위한 대회로 보기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달령제와 연계하여 판소리 경연을 강화하고, 국창 권삼득을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회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우석대학교 W-SKY 23에서 완주 문화브랜드화 세미나 '최초 비가비 광대, 권삼득 다시보다'가 주된 문화예술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사진=완주문화재단 제공)

달령제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며 권삼득의 판소리사적 의미, 그의 철학과 음악적 가치관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권삼득 스토리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설령제, 드령조, 권삼득 등 다양하게 불리는 달령제의 명칭을 통일하고, 권삼득을 이미지화하는 문화콘텐츠 개발 등 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예술인은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기존에 이루어진 권삼득에 대한 조사

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것에 놀랐으며,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 권삼득의 삶과 예술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이번 자리를 통해 '국창 권삼득의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화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 살아 숨 쉬는 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판소리 명창의 고향서 한바탕 놀아보세~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
내달 7~8일 운봉 비전마을서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 정자 앞에서는 제10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정자마루 국악 콘서트)가 오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주최하며, (주)케이아트크리에이티브가 주관하는 이번 거리축제는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차를 맞았으며, 동편제 땃자리에서 시작되어 최정삼급 명인·명창들이 찾는 국악 축제이다. 9월 7일에는 제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자 이소영 명창과 한국 전통문화 예술 공연단인 노름마치에 출연의 신명나는 소리를, 8일에는 김을희 판소리 명창과 한국형 판소리 밴드 피리밴드 저글러 정자마루 국악 콘서트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공연한다.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관람이 가능하고 문의는 남원시 문화예술과(063-620-6157) 또는 예술마을 프로젝트 사무국(02-966-6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봉읍 후수리 비전·전촌마을은 판소리 종조인 송흥록, 국창 박초월 생가와 국악의 성지가 있어 판소리 명창들의 고향이자 동편제 땃자리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 리뷰단 '폼생폼사', 도민에 긍정적 반응

개인 블로그 게시물 3개 · SNS 채널 영상 2개 등 콘텐츠 제작
통합플랫폼 핵심 정보 시각적으로 정리... 더 친숙하게 다가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 리뷰단 '폼생폼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리뷰단 '폼생폼사'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플랫폼 기능 및 콘텐츠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개인 블로그 게시물 3개와 SNS

채널 영상 2개, 총 5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통합플랫폼의 핵심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쉽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을 도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며, 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리뷰단 참여자는 "평소 이런 플랫폼이 있었

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 놀랐고 더 알릴까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소 아이들과 전시를 즐겨보는 리뷰단 한 참여자는 "매주 일정을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의 놀자! 전북으로 확인했다"며 "플랫폼을 통해 전시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해 얼리버드 이벤트에 당첨되는 혜택도 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리뷰단 참여자는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와 행사가 많다는 것을 알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자주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을 찾아볼게 될 것 같다"고 활동 후기를 남겼다. 재단 관계자는 "한 달간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리뷰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리뷰단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플랫폼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뷰단 '폼생폼사'는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 '폼'을 '생'생하게 '사'용하는 리뷰단이라는 의미로, 재단은 리뷰단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해 통합플랫폼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063-230-7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풍요, 가을빛의 향연'
전통문화재단, 11월 30일까지
세 번째 판매 기획전 진행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풍요, 가을빛의 향연' 판매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앞서 진행된 '△3~5월, 가족, 물오름, 일새, 푸른달' △6~8월, '풍류·바람과 함께 노닐다'에 이은 세 번째다. 이에 따르면 가을시즌을 겨냥해 과실을 맺고 수확하는 가을의 풍성을 드러내는데 주안을 두고 '풍요로운 부엌세간'을 주제로 소반과 여러 가지 세간사리 등을 활용한 공예 작가들의 섬세한 손길을 가을의 계절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전 기간 동안 판매관에서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가을의 색채를 담아 디자인된 고급 스카프를 증정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기획전은 가을을 맞아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풍요로움과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며 "손의 온기를 담은 특별한 공예품들과 함께 특별한 가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목재와 친해져요'...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 찾아가는 목공예 체험

도내 유치원 · 어린이집 찾아
편백 활용 얼굴문패 만들기 체험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목공예 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목재가공지원센터는 지난해 장수군, 무주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 어린이집 등을 찾아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올해는 전주와 남원, 장수, 무주 등 6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 모두 124명을 대상으로 편백을 이용한 얼굴문패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참여 아동들은 강사의 도움을 받아 목재 표면 사포질, 목공풀로 나무 붙이기, 나무판에 색칠하기 등을 통해 목재와 친밀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가족 대상으로 목가구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3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 5~8일 열리는 제18회 장수한우랑 사과랑축제 기간에도 목공예 체험 부스를 운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목공예 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도내 어느 유치원에서 진행된 목공예 체험활동.

영한다. 오승원 센터장은 "대학이 가진 우수 인력과 역량을 지역민들과 공유해 우리 전통 목공예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기 위해 매년 찾아가는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주대 아마추어 콩쿠르 음악 비전공자 대상 11일까지 접수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는 9월 28일 '제1회 아마추어 콩쿠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1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의 음악 비전공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청년부(만 19세~35세), 일반부(만 35세~59세), 시니어부(만 60세 이상)로, 수상자에게 전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장과 특전이 수여된다. 부문별 대상과 1등에게는 상금과 상품을, 또 모든 입상자에게는 전주대 교수진의 마스터 클래스(공개 레슨 및 연발에 있을 친담 실내)와 축제에서의 연주 기회가 부여된다. 한편,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는 2025년부터 '공연예술학과'로 새출발한다. /장은성 기자

'인문학과 함께 떠나는 미술관 여행' 4일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우진문화재단(김보라 이사장)은 오는 4일 오후 7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인문학과 함께 떠나는 미술관 여행 미술강좌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 주제는 '인생의 빛'을 그린 클로드 모네의 이야기다. 모네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빛을 찾아낸 그의 삶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김정배 교수의 진행으로 1부에서는 이정우철 도슨트의 강연이 '클로드 모네'를 주제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하모니카 박윤호&어스틱기타 송은제가 출연한다. /장은성 기자